

# 〈우리말샘〉의 방언 표제어에 대한 연구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김미진\* · 권미소\*\* · 현혜림\*\*\*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우리말샘〉 방언 표제어 자료의 현황
- IV. 〈우리말샘〉 제주방언 ‘·’ 표기의 실제
- V. 〈우리말샘〉 제주방언 ‘·’ 표기의 방안
- VI.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제어 가운데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단어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말샘>에는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단어를 ‘~로도 적는다’처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의 수를 확인하면 단어는 4,008개이고, 하나의 단어에서 ‘·’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하면 총 4,718번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체로 ‘ㅏ’로 표기되었고, 이어 ‘ㅑ, ㅓ, ㅕ, ㅗ, ㅛ’ 등으로도 나타났다. ‘·’의 ‘ㅏ’ 형 표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제주방언에서 ‘·’로 나타나는 단어들을 표준어형에 기대어 ‘ㅏ’의 변화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mijin3228@naver.com)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kwonssong@naver.com)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coco2536@naver.com)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말샘>에서처럼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를 일괄적으로 ‘ㅏ’ 형으로 표기할 경우 ‘맘국’, ‘남빠’, ‘바뜨다’, ‘가레’, ‘탁’ 등과 같이 실제 제주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우리말샘>에서 방언 표제어를 신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방언 표제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방언의 표제어에서 잘못 제공되는 자료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제주방언 가운데 ‘·’로 실현되어 반드시 표기할 필요가 있는 단어에 대해 표제어로 추가하는 한편 표제어 선정에 실제 발음을 최대한 고려한 표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표제어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실제 발화를 기록한 텍스트 자료와 음성을 확인한 후 다양한 이형태를 표제어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언의 표제어에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주제어 : 우리말샘, 제주방언, ·(아래아), 표제어, 개방형 사전

## I. 서론

이 연구는 현재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sup>1)</sup> 표제어 가운데 제주방언에서 ‘·’(아래아)로 실현되는 단어들이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발화되는 제주방언과 지나치게 이질적으로 표기되는 형태들에 대한 오류의 문제점을 짚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말샘>은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이라는 기치 아래 사용자가 집필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사전이다. 주지하듯 사전이란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

1)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지역 방언을 의미한다.

한 순서로 배열하여 신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을 말한다. 최근 많은 종류의 사전들을 종이뿐만 아니라 웹 문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말샘〉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웹 기반 환경을 적용한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되어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말샘〉에는 신어, 방언, 전문 용어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사용자 입장에서 방언 자료를 개별적으로 방언사전을 참고하거나 방언 자료집을 찾아보는 것<sup>2)</sup>이 쉽지 않은데 〈우리말샘〉은 각 지역 방언을 조사, 정리하여 여러 방언 자료를 담아내고 있다는 데에서도 매우 큰 특징<sup>3)</sup>을 지니고 있다.

제주방언의 경우 2010년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어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각계각층에서 제주방언의 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타 지역민에게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관심은 궁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주방언을 검색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일 테고, 제일 먼저 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샘〉이 된다.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1차적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바른 표기 방법, 뜻풀이가 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제주방언의 표제어 ‘맘국’의 표기가 적절한가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말샘〉에서는 ‘맘국’을 ‘돼지고

2)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누리집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고 지역어 검색도 상세히 되지 않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3) 〈우리말샘〉을 개통하면서 〈우리말샘〉에 방언 자료를 실는 이유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방언 표제어를 폭넓게 구축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언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박보연,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방언 구축」, 『한국사전학회 제21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2, 136쪽.

기를 삶은 국물에 모자반을 넣고 끓인 국이라는 풀이와 함께 이것을 제주방언이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제주에서 이 ‘맘국’의 표기뿐만 아니라 발음을 찾을 수는 없다.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가운데 ‘맘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맘국’은 제주에서 ‘뭉국’이라 부르는 것인데 제주방언의 ‘·’ 음을 실현하는 화자<sup>4)</sup>에게서는 ‘뭉국’, 제주방언의 ‘·’ 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화자에게서는 대개 ‘ㄱ’와 가까운 발음으로 실현되어 ‘뭉국’<sup>5)</sup>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뭉국’의 ‘·’는 ‘ㅏ’로 변화하여 ‘맘국’으로 실현되지는 않는 단어이다. 즉, ‘·’ 발음을 대개 ‘ㅏ’로 실현하는 표준어 화자, 타 방언 화자들은 ‘뭉국’의 표기를 보고 ‘맘국’이라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주에서 ‘뭉국’은 나타나는 후설 저모음 ‘·’에 가까운 소리인 ‘ㄱ’로 발음하여 ‘뭉국’이라 하거나 최대한 ‘·’에 가깝게 하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말샘>에서 ‘맘국’을 표제어로 제시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사전의 제1 기능인 정확한 정보 제공에서 어긋남은 물론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어 결국에는 제주방언의 특징인 ‘·’ 음은 물론 ‘뭉국’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단어가 생기게 된다.

현재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제주방언의 경우 여전히 ‘·’ 음으로 실현되어 표기하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ㅏ, ㅑ, ㅓ, ㅕ, ㅗ, ㅛ’형 등으로 제시된 표제어들이 있고, 또 ‘맘국’의 예처럼 실제 것처럼 발화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등재된 표제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말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우리말샘(혹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등의 구축과 그 활용 방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제어 가운데 방언 표제어만을 한정하여 그 오류를 면밀하게 살폈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방언 표제어

4) 제주방언의 모음 가운데 ‘·’가 적어도 제주방언 화자 70대 이상에게는 실현되고 있음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신우봉, 「제주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권미소,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3-26쪽.

5) 실제 제주지역의 식당 가운데 이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뭉국’으로 표기한 메뉴판과 상호명을 확인할 수도 있다.

자료를 확인하기에는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연구자의 관심이 아직 여기까지 쏠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방언의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구축된 방언 자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료 검색 시 제주방언에서 실현되는 형태와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형태들이 발견되기에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더욱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기술된 사전으로 이끌고자 제주방언에 한해, 또 그 대상을 ‘·’ 음을 포함한 단어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말샘>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말샘>에 등재된 제주방언의 실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표제어 오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sup>6)</sup>)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우리말샘>의 구축과 향후 보완점에 관련된 것들이다. 먼저 이승재를 통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사전 안에 담으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승재는 그동안 편찬되었던 사전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특징을 꼽으며 살펴보았다. 국어사전의 편찬 방법과 서비스 방법이 사용자의 요구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새로운 정보를 쉽게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

6)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우리말샘>이라는 명칭이 선정되기 전에 부르던 것으로 이때의 ‘개방형’은 일반인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편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찬 권한을 개방하였다는 의미로 사업명에 사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샘>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선행 연구 검토 자료로 삼고 있다. 이승재, 「21세기형 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한국사전학』 제20권, 한국사전학회, 2012, 132쪽.

서 결국 ‘개방적’으로 다양한 ‘언어 지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보연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방언 자료를 어떻게 구축했는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방언 구축의 배경과 목표, 사업의 개요, 방언 구축의 실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단어의 방언형 가운데 방언 자료(방언사전, 방언 자료집 등)의 분석을 통해 표제어로 올릴 단어를 선정하고, 표제어의 뜻풀이와 용례 등을 제시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보연을 통해 <우리말샘>의 방언 표제어의 선정 기준, 표기 원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가 포함된 ‘말젯아들’과 같은 단어를 표제어로 등록하고자 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논의에서 제주방언의 ‘..’의 경우에는 ‘ㅁ’로 표기함<sup>8)</sup>도 덧붙여 제시되었다.

송현주·김령환은 <우리말샘> 관련어 정비 구축 사업에 대한 소개, <우리말샘>의 ‘참고어휘’ 하위 분류의 필요성과 그 유형에 대해 논의하며 실제 집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관련 어휘 정보는 동의어, 참고어휘가 전체의 85%를 차지하여 정보의 편향성이 심함을 지적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참고어휘 하위 유형을 ‘이형태, 동류개념, 대립어, 큰말-작은말, 여린말-센말-거센말, 기타’의 6개로 재분류하였는데 ‘기타’의 항목은 좀 더 세밀한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sup>9)</sup> 송현주·김령환의 연구는 <우리말샘>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위진은 <우리말샘> 개통 이후의 정보 이용 통계 기록을 토대로 사용자의 특징과 요구를 분석하고, <우리말샘>의 사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방

7) 이승재, 앞의 논문, 114-140쪽.

8) 박보연, 위의 논문, 137-147쪽.

9) 송현주·김령환, 「<우리말샘> 참고어휘의 하위 분류 방안」, 『언어과학연구』 71호, 언어과학회, 2014. 151-174쪽.

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말샘〉이 사전 정보를 풍부하면서도 균형 있게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10)</sup>고 하였다.

이승재, 박보연, 송현주·김령환 외에도 김선철<sup>11)</sup>은 〈우리말샘〉 편찬의 배경과 의의, 속성, 미시구조, 향후 발전 방향을, 이현주<sup>12)</sup>는 〈우리말샘〉의 추진 경과와 구축 자료의 교정·교열, 향후 과제 등을 〈우리말샘〉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우리말샘〉 구축에 참여했던 연구진 혹은 〈우리말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대변하는 관계자 등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체로 〈우리말샘〉의 특징을 먼저 내세우고, 부분별로 향후 보완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우리말샘〉의 활용 측면에서 표제어 가운데 오류가 있음을 논의한 연구는 이근열과 신우봉이 있다. 이근열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나타나는 한자 어명 가운데 오류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노랑가오리, 명태, 서대, 반지 등의 일부 어명을 대상으로 옛 문헌에 나타난 어명과 비교 검토하며 오류를 지적하였다. 원전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여 오류들이 발생하고 앞선 사전의 오류를 답습하여 지속적으로 표제어에 오류가 나타난다고 보며 사전의 한자 어명 오류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sup>13)</sup>고 주장하였다.

본고와 관련해서 눈여겨 봐야 할 논의는 신우봉이 〈우리말샘〉의 제주방언 표제어 처리에 관해 제주방언 사전 2편의 정보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신우봉은 〈우리말샘〉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언 가운데 제주방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10) 위진,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이용 양상 분석」,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2018, 7-31쪽.

11) 김선철, 「새로운 언어 사전과의 만남: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새국어생활』 26권 4호, 국립국어원, 2016, 9-25쪽.

12) 이현주, 「〈우리말샘〉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26권 4호, 국립국어원, 2016, 65-85쪽.

13) 이근열, 「국어 사전의 한자 어명(魚名) 오류 연구」, 『어문론총』 제83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9-38쪽.

표제어 정보가 표준어와 달리 적게 제시되고 있고, 방언 표제어의 표기에서도 ‘·’ 음의 처리, 뜻풀이, 용례의 표준어 대역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주방언 연구자와 화자들이 집필진과 감수진으로 참여하여 정교한 집필 및 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더 많은 자료와 용례를 활용하여 제주방언 어휘에 대한 정보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sup>14)</sup> 다만 신우봉의 연구에서 지적한 오류들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방언의 뜻풀이 서술 방법 가운데 ‘·’의 표기를 ‘제주지역에서 ○○으로도 적는다’와 같이 기술한 제주방언 표제어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Ⅲ. <우리말샘> 방언 표제어 자료의 현황

#### 1. 방언 표제어의 범주별·지역별 현황

<우리말샘>은 개통된 이후부터 연도별, 월별 사전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2022년 2월 3일 검색 기준으로 보면 <우리말샘>의 표제어 수는 총 1,137,315개에 달한다. <우리말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주별 현황 통계 자료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우리말샘>의 표제어 범주별 통계 현황

범주		표제어 수(개)	비율(%)
일상어	일반어	336,209	29.562
	방언	110,339	9.702
	옛말	12,799	1.125

14) 신우봉, 『<우리말샘>에서 제주방언 처리에 대하여』, 『2021 영주어문학회·민족어문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제주언어와 문학의 경계를 넘어』, 2019, 51-63쪽.



	북한어	38,889	3.419
	소계	498,236	43.808
전문어	일반어	611,793	53.793
	북한어	27,286	2.399
	소계	639,079	56.192
합계		1,137,315	100

<표 1>을 보면 방언의 표제어 수는 110,339개로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전문어를 제외하고 일상어에서 방언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따져 본다면 22.146%에 달하여 이는 <우리말샘>에서 제공하는 방언 표제어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우리말샘>에서는 방언의 지역별 현황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검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표로 옮겨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리말샘〉의 방언 지역별 통계 현황

지역	표제어 수(개)	비율(%)	지역	표제어 수(개)	비율(%)
강원	16,403	12.067	평남	672	0.494
경기	4,310	3.171	평북	4,620	3.399
경남	16,228	11.938	평안	3,165	2.328
경북	10,792	7.939	함경	2,766	2.035
경상	4,989	3.67	함남	4,248	3.125
전남	16,488	12.129	함북	3,711	2.73
전라	5,798	4.265	황해	2,661	1.958
전북	3,072	2.26	중국 길림성	2,766	2.035
제주	18,098	13.313	중국 요령성	1,475	1.085
충남	4,512	3.319	중국 흑룡강성	2,193	1.613
충북	3,435	2.527	중앙아시아	185	0.136
충청	3,351	2.465	합계	135,938	100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말샘>에서 제공하는 방언의 표제어 수는 총 135,938개인데<sup>15)</sup> 이 가운데 제주방언 표제어 수는

18,098개에 해당한다. 또한 등록된 제주방언 표제어의 수는 전체 23개의 지역 가운데 13.3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말샘>을 구축할 당시 방언 표제어의 선정 기준을 들여다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표제어(표준어, 비표준어, 북한어, 방언)와 ‘동일한’ 단어로 판단되는 방언형은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단어 형식의 방언형만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sup>15)</sup> 이에 따라 자연히 <우리말샘>에 제주방언 표제어의 수가 가장 많아졌을 것이라 본다. 주지하듯이 제주방언의 어휘 가운데는 표준어와 다른 형태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 가운데도 ‘·’ 음을 가진 단어가 특히나 많기 때문이다.

## 2. 제주방언 ‘·’ 어휘 표기의 현황

제주방언의 어휘 가운데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말샘>에 올라 있고, 그 표기의 방법은 어떠한 형태를 띠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우리말샘> 누리집의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 ‘맘국’의 검색 화면을 옮긴 것이다. <우리말샘>에서는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맘국의 ‘·’를 ‘ㅏ’로 표기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맘국’은 ‘모자반국’의 방언으로 ‘제주지역에서 ‘맘국’으로도 적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제주방언에서는 ‘모자반국’의 방언을 ‘맘국’처럼 표기하지만 ‘맘국’처럼 표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다.

15)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방언의 표제어의 수와 <표 2>의 전체 방언의 표제어 수가 다른 이유는 아마도 중복되는 방언 표제어 수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16) 박보연, 위의 논문, 141-142쪽.

전문가 감수 정보	참여자 제안 정보
<span style="margin-right: 20px;">▶ 편집하기</span> <span>▶ 편집 금지 요청</span>	
<b>맘-국</b>	
품사	「명사」
분류	「방언」

「001」 「모자반국」의 방언(제주). 제주 지역에서는 ‘뭍국’으로도 적는다.

- ▶ 상봉이네 집 잔치렌 상봉이 어머가 맘이여 꿩기영 뚝뚝 낱 꿀린 맘국을 가져와십디다.  
번역: 상봉이네 집에서 잔치라고 상봉이 어머니가 모자반과 고기를 뚝뚝 넣고 꿀린 모자반국을 가져왔습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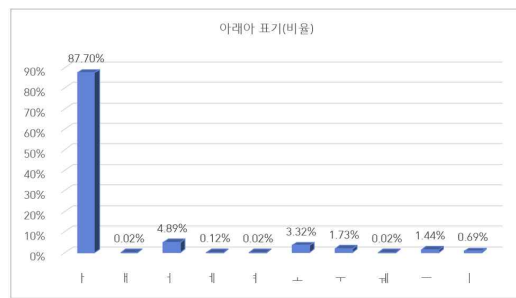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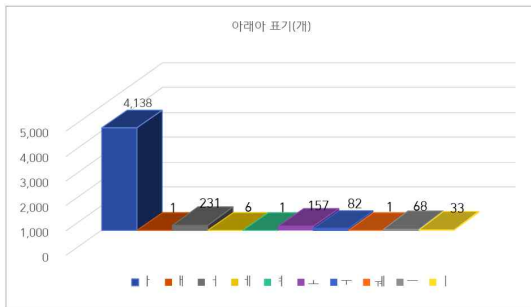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말샘>에서 ‘맘국’을 검색한 화면

위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말샘>에 나타나는 제주방언 가운데 ‘·’ 음을 가지는 표제어의 수는 4,008개<sup>17)</sup>이다. 다만 제주에서 ‘·’가 실현되는 경우가 ‘늬뻘’처럼 1음절인 경우, ‘아들’처럼 2음절인 경우, ‘늬뻘’처럼 1, 2음절 모두인 경우와 ‘문작문작하다’처럼 1, 3, 5음절에 실현되어 총 3번이 나타나는 경우 등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음절

17) <우리말샘>의 표제어 가운데 제주방언에서 ‘·’를 포함한 단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우리말샘>의 표제어 전체를 내려받았다. <우리말샘> 누리집에 회원 가입을 하여 내 정보 관리에 들어가 사전 내려받기를 한 뒤 엑셀 전체를 내려받는 순서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총 24개의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24번인 1개의 파일은 옛말을 제시한 것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23개의 파일 하나씩 정렬 및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우선 방언 지역을 제주를 포함한 것으로 골라(필터) 정렬하였다. 이후 다시 참고 정보로 제시되어 있는 검색용 이형태에서 ‘·’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선택(필터링)하여 최종 골라내어 확보한 자료를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차적으로는 <우리말샘>에서 자세히 찾기 기능을 활용해 필진이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수가 정확한지를 교차 확인하기도 하였다. <우리말샘>의 ‘자세히 찾기-단어 찾기-찾을 대상’에서 조건을 ‘뜻풀이’로 선택하고 ‘포함 문자’에 ‘로도 적는다’를 입력했을 경우 제주방언의 ‘·’(아래아) 표기된 이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4,010개의 방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어뜨하모’는 ‘걸핏하면’의 경남 방언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어뜨하만’으로도 적는다고 제시되었으나 ‘어뜨하모’는 제주방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다. 또한 ‘으쌩하다’는 ‘태연하다’의 전남 방언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으쌩하다’로도 적는다고 서술하나 이 역시 사용하지 않는 말이므로 이 논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두 단어를 제외한 4,008개만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는 고려하지 않고 ‘·’가 검색되는 단어들을 합해 출현 빈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4,008개의 단어 가운데 ‘·’가 출현한 횟수는 총 4,718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말샘>에서는 전체 4,718번의 ‘·’ 음을 어떻게 표기 하고 있는가?



<그림 2> ‘·’ 음이 표기된 모음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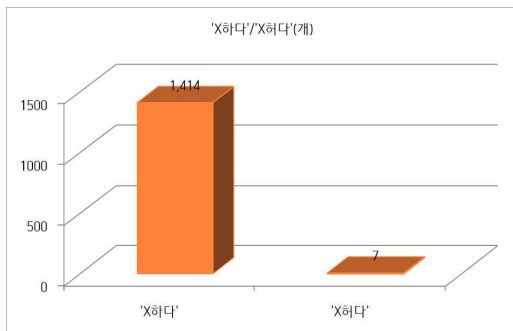
<그림 3> ‘·’ 음이 표기된 모음의 비율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가 ‘ㅏ’로 표기된 것이 4,138번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고, 그 뒤로 ‘ㅓ’의 표기가 231번 4.89%로 나타났다. 이어 ‘ㅛ’ 표기가 157번으로 3.32%, ‘ㅜ’ 표기가 82번으로 1.73%, ‘ㅡ’ 표기가 68번으로 1.44%, ‘ㅣ’ 표기가 33번으로 0.69%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ㅑ’, ‘ㅕ’, ‘ㅗ’ 표기<sup>18)</sup>가 각각 1번으로 0.02%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우리말샘>에서는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어휘를 대체로 ‘ㅏ’로 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ㅏ’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주방언에서 실현되는 ‘·’의 음운 변화를 표준형에 기대어서 일괄 ‘·’를 ‘ㅏ’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여 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8) <우리말샘>에 ‘매듭짓다’의 제주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 ‘마작맷다’는 제주방언의 ‘막작맷다’이고, ‘짜다’의 제주방언으로 등재된 ‘웁질다’는 제주방언의 ‘줍질다’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으끄다’는 현 <우리말샘>에서 유일하게 ‘·’로 나타난 예로 이 연구의 자료인 ‘~로도 적는다’에 검색되어 여기서 함께 다루었다.

한편, 별도로 제주방언에서 ‘Xㅎ다’로 나타나는 단어들도 그 수와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방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Xㅎ다’는 ‘X허다’로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샘>에서 ‘Xㅎ다’로도 적는다고 표기된 단어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살펴보면 전체 1,421개로 확인되는데 이 단어들은 거의가 ‘X하다’의 표제어로 나타난다.



<그림 4> <우리말샘>에 나타나는 제주방언 'X하다'와 'X허다'의 수



<그림 5> <우리말샘>에 나타나는 제주방언 'X하다'와 'X허다'의 비율

<그림 4>에서처럼 제주방언에서 ‘Xㅎ다’로 실현되는 어휘들은 전체 1,421개의 어휘 가운데 ‘X하다’의 형태가 1,414개, ‘X허다’의 형태는 겨우 7개에 해당한다. <그림 5>를 통해서도 99.7%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X하다’ 형태가 표기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방언에서 ‘Xㅎ다’가 ‘X허다’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 ‘ㅏ’ 변화로 본 것이다.

이러한 <우리말샘>의 제주방언 ‘·’의 처리 방법은 제주지역의 현실 발음과 표기 모두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고, 그것은 결국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 IV. <우리말샘> 제주방언 ‘·’ 표기의 실제

<우리말샘>의 방언 표제어는 ① 단어 형식의 방언형(조사 보류), ② 방언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방언형, ③ 용언의 기본형을 선정의 대상으

로 삼는다. 또한 ①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와 동일한 단어, ② 비어두음절 모음이 ‘ㄱ:ㄱ’의 차이만 있을 경우, ③ 음소 대립이 상실된 ‘ㄱ:ㄱ’, ‘ㄴ’, ‘ㄷ’에 의한 복수 표기, ④ 표준어형과 접미사에서만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방언형을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9)</sup>

위의 표제어 선정 원칙을 따르면 <우리말샘>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하꼼만’, ‘저배기’, ‘저배기’ 등은 표제어 등재를 고려해야 하는 단어들이다. ‘하꼼만’은 ‘하꼼’과 조사 ‘만’이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조사 결합형은 표제어가 될 수 없다. 또한 ‘저배기’, ‘저배기’처럼 비어두음절에서 변별력이 없는 ‘ㄱ’와 ‘ㄱ’의 차이를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 또한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방언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방언형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표제어로 제시되어야 사용자 정보 제공 차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어디까지 등재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방언 표제어 집필 방식 가운데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24 자모 외에 ‘·’를 추가하고 기타 자모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sup>20)</sup>을 세우고 집필하였는데 현재 <우리말샘>에는 ‘·’가 표제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옛말에만 해당하며 제주방언에서는 ‘·’를 뜻풀이에 보충하는 ‘~로도 적는다’의 서술만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우리말샘>의 방언 구축을 할 때에는 ‘·’가 포함된 방언 표제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이는 집필 지침을 수립했으나 <우리말샘>에는 어디에도 방언에서 ‘·’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곳은 찾을 수 없다. 또 집필 지침에서 ‘..’의 표기는 ‘ㄱ’로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우리말샘>의 ‘..’ 표기는 ‘ㄱ’로 나타나 있다.

<우리말샘>에 등재된 제주방언의 ‘·’를 포함하는 단어의 양상은 3장에서 살펴보았듯 ‘ㄱ, ㄱ, ㄱ, ㄱ, 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제주방언에서 ‘·’가 실현되는 단어에 대해 일괄적으로 표제어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현대국어의 형태를 반영하거나 현실 발음과 어원을 고려

19) 박보연, 앞의 논문, 141쪽.

20) 박보연, 앞의 논문, 142쪽.

하여 표제어를 선정한 경우도 보인다.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형태로만 표기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단어를 표제어로 올린 경우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우리말샘>에서 ‘·’를 포함하는 제주방언의 표제어가 실현된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 1. 하나의 형태로 표기한 경우

### 1) ‘ㅏ’ 표기형

<우리말샘>에서 ‘·’로 실현되는 제주방언을 등재한 것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는 ‘·’가 ‘ㅏ’로 표기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 현대국어에서 ‘ㅏ’로 변화하는 경우가 우세했기 때문에 표제어를 ‘ㅏ’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아래부터 보이는 예들의 제시 순서는 제주방언: <우리말샘> 표제어(표준어)이다.

#### (1) 딸: 딸(딸)

ㅁ음: 마음(마음)

달: 달(달月)

등기다: 당기다(당기다)

쌀: 쌀(쌀)

(1)은 제주방언에서 ‘·’로 발음되나 <우리말샘>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역 표기를 하지 않은 형태이다. 제주에서는 ‘달’, ‘쌀’이라고 발음하며 표기하나 <우리말샘>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러한 방언형은 없다고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로 발음되는 제주방언형은 없으며 표준어형과 동일한 형태만 존재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 (2) ㄹ레: 가레(맷들)

망쿨: 망쿨(쟁깃술)

ㅂ뜨다: 바뜨다(짚다)

### 눈자술: 눈자살(눈자위)

(2)의 예처럼 ‘·’를 ‘ㅏ’로 표기했을 경우 실제 제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레’, ‘망쿨’, ‘바뜨다’, ‘눈자살’ 등과 같은 단어들 사전에 등재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제주에서 [·]나 [ㅏ]로 발화됨을 고려해 ‘고레, 몽쿨, 보뜨다, 눈자술’ 정도로 발음하고 표기한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우리말샘>의 표제어로 발화하였을 경우에는 제주방언이라고 하였으나 제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계어를 생산하게 된다.

### 2) ‘ㅏ’ 표기형

다음은 제주방언에서 ‘·’의 형태로 나타나는 단어를 <우리말샘>에서 ‘ㅏ’로 표기하여 표제어로 등재한 경우이다. 제주방언의 ‘·’ 포함 단어 중 ‘ㅏ’로 표기한 단어는 대부분 제주에서 [·], [ㅏ], [ㅑ] 등의 발음 형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ㅏ’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발음되는 편이다.

### (3) 즐레: 절레(바늘겨레)

즈들아지다: 저들아지다(걱정되다)

특쉬염: 텍쉬염(턱수염)

‘즐레’는 제주방언에서 ‘즐레, 졸레, 절레’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말샘>에 ‘절레’ 형만을 등재하고 있어 제주에서 ‘절레’로만 표기하고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말샘>에서 ‘바늘겨레’를 뜻하는 제주방언을 검색했을 때는 ‘바농절레, 바농졸레, 바농질레, 바농철레, 절레’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같은 단어가 합성 명사와 단일 명사일 때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과 발음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어 모순을 보인다. ‘특쉬염’의 경우는 ‘텍쉬염’처럼 ‘특’을 ‘텍’으로 표제어로 제시하나 사람의 입 아래에 있는 뾰족하게 나온 부분인 ‘턱’의 제주방언을 검색해 보면 그 표제어는 ‘턱’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단독형에 존재하는



형태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게 제시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먼지’의 제주방언인 ‘믄지레기’는 ‘먼지레기’로 등재되어 있고 표기 정보도 “제주지역에서는 ‘믄지레기’로도 적는다”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제주에서 더 많이 발화되는 ‘ㄴ’형의 ‘믄지레기’는 ‘먼지’의 제주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로도 적는다’와 같은 표기 정보조차 없다.

### 3) ‘ㄴ’ 표기형

제주방언에서 ‘·’가 들어 있는 단어를 <우리말샘> 사전에서 ‘ㄴ’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4) 뭉케다: 뭉케다(뭉그적거리다)

ㅼ제기질: 보제기질(고기잡이)

술각: 술각(관술)

봣뎡창웃: 봣뎡창웃(깃저고리)

스미: 소미(소매)

ㅼ깨다: 보깨다(보채다)

ㅼ테끼다: 보테끼다(보대끼다)

(4)의 예들은 ‘·’를 발음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화자들은 거의 ‘·’를 ‘ㄴ’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발음과 유사한 경우이다. 다만 ‘ㅼ제기질’의 경우 ‘보제지질’로 등재하고 있는데 ‘보제기’는 ‘어부의 방언(제주)’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ㅼ제기’로도 적는다.’는 언급은 빠뜨리고 있다. 이 <우리말샘> 자료로만 본다면 ‘보제기질(고기잡이)’의 ‘보제기’와 ‘보제기(어부)’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4) ‘ㄴ’ 표기형

다음은 제주방언에서 ‘·’가 포함된 단어를 <우리말샘> 사전에서

‘ㄴ’형으로 등재한 표제어이다.

(5) ㅼㅅ: 부ㅅ(ㅅ)

ㅼㅅ: 부ㅅ(무엇을 말끔하게 없애거나 남김없이 빼앗는 모양)

ㅼㅅㅅ: ㅼㅅㅅ(옹알옹알)

ㅼㅅㅅ다: ㅼㅅㅅ다(옹알ㅅ다)

(5)는 ‘·’를 ‘ㄴ’로 등재한 예이다. ‘ㅼㅅ’과 ‘ㅼㅅ’는 현실 발음에서 [·]나 [ㅅ]로 실현되는 경우이나, <우리말샘>에는 ‘부ㅅ, 부ㅅ’가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표제어는 ‘ㄴ’로 적을 근거가 없음에도 실제 제주방언에서 ‘ㄴ’형으로 발음된다는 오해의 여지를 준다. ‘ㅼㅅㅅ’과 ‘ㅼㅅㅅ다’는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 [ㅅ], [ㅅ]로 발음되므로 ‘ㄴ’형만을 표제어로 다루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발음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같은 의미의 표제어 ‘ㅼㅅㅅ’이 등재되어 있고 유의관계도 형성되어 있으나 ‘ㅼㅅㅅ, ㅼㅅㅅ다’에는 표기 정보가 없다. 또한 ‘ㅼㅅㅅ하다’의 표기 정보는 “ㅼㅅㅅ하다로도 적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ㅼㅅㅅ하다’가 ‘ㅼㅅㅅ’ 등과 유의관계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5) ‘ㅡ’ 표기형

제주방언에서 ‘·’가 포함된 단어를 <우리말샘> 사전에서 ‘ㅡ’로 등재한 표제어를 살펴본다.

(6) ㅅㅅ: ㅅㅅ(털빛이 흑색과 황색으로 얼룩덜룩한 돼지)

ㅅㅅ: ㅅㅅ(얼룩소)

ㅅ: ㅅ(흙)

ㅅㅅ: ㅅㅅ(흙질)

ㅅ다: ㅅ다(뜯다)

ㅅ다다: ㅅ다다(갈라ㅅ다)

‘흙’과 ‘툧다’는 표준어 형태가 ‘ㄱ’형인 것을 감안하여 ‘혹’을 ‘혹’으로, ‘툧다’를 ‘툧다’처럼 표제어를 등재한 경우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 ‘혹’은 ‘혹’이나 ‘학’처럼도 실현되고, ‘툧다’도 ‘툧다’나 ‘툧다’처럼 발화되며 표준어처럼 ‘혹’이나 ‘툧다’처럼만 나타나지 않는다. ‘숙돛’과 ‘숙쇄’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룩덜룩한 돼지와 소를 일컫는 말로 제주방언에서는 ‘숙’, ‘숙’, ‘식’으로 나타난다. ‘숙돛’, ‘숙쇄’를 표제어로 삼은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식돛’과 ‘식쇄’는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유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표기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6) ‘ㅣ’ 표기형

제주방언에서 ‘·’가 실현되는 단어를 <우리말샘> 사전에서 ‘ㅣ’로 등재한 표제어이다.

- (7) 즐그랑이: 질그랑이(지그시)  
      줍아놓다: 집아놓다(집어넣다)  
      줍재기: 집재기(집게벌레)  
      줍지다: 집지다(집다)

(7)은 ‘·’가 ‘ㅣ’로 표기된 예로 ‘지그시’, ‘집다’와 같은 표준어 단어의 영향으로 ‘ㅣ’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줍재기’의 경우는 ‘줍제기’와 같은 변이형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유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으로도 적는다’와 같은 표기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줍지다’의 경우는 ‘줍지다, 줍치다’와 같은 단어도 ‘집다’의 제주방언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역시 표기 정보로 ‘·’ 형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7) ‘ㄱ’ 표기형

제주방언에서 ‘·’가 포함된 단어를 <우리말샘> 사전에서 ‘ㄱ’로 등재한 표제어이다.

(8) ㅼ염: 베염(뱀)

물ㅼ염: 물버염(물뱀)

‘뱀’의 제주방언은 ‘버염, 베염, 비염’이다. ‘버염, 베염, 비염’에서는 뜻풀이 표기 정보인 ‘~로도 적는다’는 언급이 없으며 ‘베염’에서만 “ㅼ염이라고도 적는다”는 표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물버염’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물ㅼ염이라고도 적는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버염’이 ‘물ㅼ염’과 관련이 있다면 ‘버염’에도 “ㅼ염이라고도 적는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표기한 경우

하나의 ‘·’가 실현되는 제주방언이 두 가지 이상의 표제어 형태로 제시된 경우가 많다. 이는 1) ‘·’가 ‘ㅅ’나 ‘ㅆ’로 표기된 경우 2) ‘·’가 ‘ㅅ’나 ‘ㅆ’로 표기된 경우 3) ‘·’가 ‘ㅅ’나 ‘ㅆ’로 표기된 경우 4) ‘·’가 ‘ㅆ’나 ‘ㅅ’로 표기된 경우 5) ‘·’가 ‘ㅅ’나 ‘ㅆ’, ‘ㅆ’로 표기된 경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 1) ‘ㅅ’, ‘ㅆ’ 표기형

먼저 ‘·’를 가진 단어가 ‘ㅅ’나 ‘ㅆ’형 두 가지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다.

#### (1) 줌복: 잠복, 점복(전복)

믈터거니: 말터거니, 멀터거니(산떡통)

즈금타는낭: 자금타는낭, 저금타는낭(백일홍)

주술: 주살, 주설(장판지)

쥐술: 쥐살, 쥐설(장판지)

전복의 제주방언은 ‘잠복, 점복’만이 표제어로 올라가 있다. 그런데 암수를 구분하여 전복을 표기하는 경우는 ‘암촌복’, ‘수촌복’을 각각 ‘암

천복', '수천복'으로 제시하였다. '암촌복, 수촌복'의 형태는 '준복'에 '암, 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준복'의 형태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몰터거나'와 '조금타는냥'은 '·'가 'ㅏ'와 'ㅑ' 두 가지로 제시된 예이다. 실제 제주지역의 현실 발음을 참고한 것이라면 'ㅑ'형인 '몰터거나'와 '조금타는냥'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방언에서 '말터거나'나 '자금타는냥'이라고 발화하는 예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술'과 '취술'은 '장판자'를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2음절에서 '·'가 나타나는 단어로 '·'가 'ㅏ'와 'ㅑ'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발화가 되지 않는 형태들이다.

## 2) 'ㅏ', 'ㅑ' 표기형

다음에서 '·'를 가진 단어가 'ㅏ'나 'ㅑ' 형의 두 가지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를 살펴본다.

### (2) ㅏ디계: 바디계, 보디계(바투)

솔ㅏㅓㅓㅎ다: 솔ㅏㅓㅓ하다, 솔ㅏㅓㅓ하다(두려워하다)

즈눔: 자눔, 조눔(빗물이 땅에 스며들어 밭 갈기에 알맞음)

죵질다: 잠질다, 줌질다(자잘하다)

츨리다: 찰리다, 츨리다(차리다)

ㅋ쿨: 카칼, 코쿨(깨끗이)

ㅏ라지다: 타라지다, 토라지다(비뚤어지다)

흙세: 함세, 흙세(어린이가 무엇을 달라고 보채며 어리광 부리는 짓)

예문 (2)는 '·'가 'ㅏ' 또는 'ㅑ' 두 가지로 등재된 경우 중 단일어의 예이다. 제주방언에서는 [·], [ㅑ]로 발음되는 경우로 실제 발화를 고려하여 'ㅑ' 형태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의 'ㅋ쿨'의 '카칼'이나 'ㅏ라지다'의 '타라지다', '흙세'의 '함세' 등은 제주방언에서

발화되지 않는 형태로 표제어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 (3) 즈무충이: 잠무충이, 줌무충이(잠꾸러기)  
브르는물레: 바르는물레, 보르는물레(씨아)  
숫나끼: 샷나끼, 솟나끼(새끼)  
프리침: 파리침, 포리침(주근깨)  
팔짚: 팔짚, 폴짚(팔짱)  
팟쟁이: 팻쟁이, 풋쟁이(아주 작은 게)  
팟버렁이: 팻버렁이, 풋버렁이(팔망아지)  
줏빨강하다: 잣빨강하다, 좃빨강하다(아주 새빨강다)  
큍바가지: 각바가지, 콍바가지(쪽박)

- (4) 베록즙: 베록잠, 베록좁(노루잠)  
산전볼락: 산전발락, 산전볼락(방아깨비)  
축브름: 축바름, 축보름(돌과 흙 따위로 둘러막은 집의 둘레)  
짚스끼: 짚사끼, 짚소끼(새끼)  
흔 ㄱ리: 한가리, 한고리(한고비)

예문 (3)과 (4)는 ‘·’가 ‘ㅏ, ㅑ’ 두 가지로 등재된 경우 중 복합어의 예이다. (3)은 1음절에 ‘·’가 있는 단어로 ‘즘’을 ‘잠과 ‘좁’으로 표기한 것이다. <우리말샘>에서 제주방언 ‘즘’은 ‘잠과 ‘좁’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잠무충이, 줌무충이’처럼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팔’의 제주방언인 ‘팟’을 ‘팻, 풋’ 두 가지로 제시하였으나 ‘팟밥’이나 ‘팟고물’ 등은 전남방언으로만 올라 있고 제주방언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줏빨강하다’와 ‘큍바가지’를 ‘ㅏ’형으로 표기한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발음이다. (4)의 ‘베록즙, 산전볼락, 축브름, 짚스끼, 흔 ㄱ리’ 등은 2음절에서 ‘·’가 나타나는 형태로 단어 결합 전에 1음절에 ‘·’가 있었던 형태이다. 결합의 과정이나 2음절 이하에서의 ‘·’ 형태의 변화에서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3) ‘ㅏ’, ‘ㅑ’ 표기형

다음은 ‘·’가 들어간 제주방언의 단어가 <우리말샘>에 ‘ㅏ’형과 ‘ㅑ’형 두 가지로 등재된 경우다.

- (5) 독ㅏ리: 독마리, 독무리(무릎)
- 독ㅑ립: 독마립, 독무리(무릎)
- 독ㅑ립: 독마립, 독무리(무릎)
- 독ㅑ립: 독무리(무릎)
- 독ㅏ리짱: 독마리짱, 독무리짱(무릎뼈)
- 독ㅑ립짱: 독마립짱, 독무리짱(무릎뼈)

‘무릎’을 뜻하는 제주방언은 ‘독’, ‘독ㅏ리’, ‘독ㅑ립’, ‘독ㅑ립’, ‘독무리’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말샘>에서 ‘무릎’을 의미하는 제주방언은 2음절의 ‘ㅏ’를 ‘ㅑ’ 혹은 ‘ㅑ’처럼 두 가지 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독무리’는 확인되어도 ‘독마립’은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무릎뼈’를 뜻하는 ‘독ㅏ리짱’과 ‘독ㅑ립짱’에서 2음절의 ‘ㅏ’도 ‘ㅑ’와 ‘ㅑ’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는 ‘독ㅑ립짱’은 ‘독마립짱’처럼 ‘ㅑ’이 예사소리로 제시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4) ‘ㅓ’, ‘ㅕ’ 표기형

제주방언에서 ‘·’를 가진 단어가 <우리말샘>에서 ‘ㅓ’형과 ‘ㅕ’형, 두 가지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다.

- (6) 줍ㅓ: 줍ㅓ, 집ㅓ(젓가락)
- 줍ㅑ계: 줍ㅑ계, 집ㅑ계(집계)

‘젓가락’ 또는 ‘집계’를 뜻하는 ‘줍ㅓ’와 ‘줍ㅑ계’는 <우리말샘>에서 ‘줍ㅓ’, ‘집ㅓ’, ‘줍ㅑ계’, ‘집ㅑ계’와 같이 ‘ㅓ’형과 ‘ㅕ’형 두 가지 형태를 표

제어로 등재하였다. <우리말샘>에서 ‘젓가락’의 제주방언으로 ‘저뵈, 자뵈’도 제시되어 있으며 ‘저뵈’의 뜻풀이에는 “‘즈뵈’으로도 적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자뵈’의 뜻풀이에는 ‘젓가락’의 방언이라는 설명밖에 없으며 유의관계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다.

5) ‘ㅏ’, ‘ㅑ’, ‘ㅓ’ 표기형

제주방언의 ‘·’형을 ‘ㅏ’, ‘ㅑ’, ‘ㅓ’처럼 세 가지로 표기하여 <우리말샘>에 올린 경우이다.

(6) 즈베기: 저베기, 저배기, 저바기, 수저베기(수제비)

자바기, 자베기, 조베기

줍다: 잡다, 접다, 줍다(집다)

‘수제비’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를 ‘ㅑ’로 표기한 것에는 표기 정보인 ‘~으로도 적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ㅏ’나 ‘ㅓ’로 표기한 표제어에는 표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줍다’의 제주방언이 ‘줍다’는 ‘잡다, 접다, 줍다’가 등재되어 있는데 ‘잡다’에만 표기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 V. <우리말샘> 제주방언 ‘·’ 표기 방안

### 1. 제주방언 표제어로 ‘·’ 형태 인정

앞에서 제시한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제주방언의 ‘·’ 표기를 <우리말샘>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말샘>은 다양한 어휘를 수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개방성과 양방향성을 표방하고 있는 사전



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언 어휘들을 <우리말샘>으로 옮기고 신어와 전문어 등도 실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사전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제주방언에서 ‘·’는 제주방언 화자의 발화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음운이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의 발음 방법과 ‘·’가 들어간 단어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발간되는 방언사전은 ‘·’가 들어 있는 단어들이며 연구자들도 제주방언에서의 ‘·’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말샘>은 제주방언을 사전에 등재하면서 제주지역에서 현재 사용되는 음운인 ‘·’를 획일화, 표준화하여 다른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언어의 인위적 사멸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언어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형태로 제시하거나 없는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전의 표기는 한글로 하며 표기는 현행 어문 규정에 따른다. <표준국어대사전> 표기에서도 ‘방언은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표기한다. 제주방언에서도 ‘·’를 표기하지 않는다.’<sup>21)</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말샘>에서 옛말은 문헌에 나오는 표기대로 적고 있다.

1) 바람 「001」 「명사」 「옛말」 ‘바람의 옛말.

지역어(방언): 바람(경남), 버림(경북), 째(경북), 바램(경상, 함남), 통구리(충청), 통서리(충청), 바래미(함경), 보람(함경), 보름(함경), 바림(함북, 중국 길림성), 보름(함북)

(2) 물 「001」 「명사」 「옛말」 ‘말의 옛말.

지역어(방언): 물(경남, 함경), 모리(함경), 마리(함북)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 휴먼컬처이리랑, 2014, 2쪽.  
‘제주방언의 ‘·’ 표기는 기존 사전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 편찬 추진위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나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 (2)는 ‘바람’과 ‘말’의 옛말을 <우리말샘>에서 검색한 것과 이들의 지역 방언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브름, 말’처럼 옛말과 같은 형태의 발화가 현재도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말샘>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제주방언의 형태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바람, 말’처럼 발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듯셋브름: 듯셋바람(셋바람)

마브름: 마바람(마파람)

언브름: 언바람(찬바람)

브름받이: 바람받이(바람이 많이 부는 곳)

브름코지: 바람코지(바람받이)

갈브름: 갈바름(갈바람)

셋브름: 셋바름(셋바람)

언브름: 언바름(찬바람)

건들브름: 건들바름(건들바람)

(3)에서 보듯 ‘바람’의 제주방언은 합성어에서 ‘바람, ‘바름’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표기 정보에서 ‘브름’, ‘브름’으로도 적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준어 ‘바람’의 제주방언형인 ‘브름’은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제주방언은 ‘브름’과 ‘브름’이 확인되는데, ‘브름’은 <우리말샘>에서는 ‘바람’으로 1음절, 2음절 모두 ‘야’로 변화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브름’은 ‘바름’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제주방언형으로 ‘브름’과 ‘브름’형을 인정하고 이들의 합성어를 표제어로 올리는 데에 있어 ‘·’를 ‘ㅏ’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제주방언형의 ‘브름’을 표준어와 동일형인 ‘바람’으로만 등재하면 제주방언과 표준어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간전말: 간자말

먹가라말: 먹가라말

청충물: 청충말

유매물: 유마

가축 ‘말’을 표현하는 단어 역시 제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합성명사가 나타난다. 앞선 (2)에서처럼 제공된 지역 정보만으로는 제주지역에서 ‘말’을 뜻하는 방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다양한 합성어에서 ‘물’의 형태가 실현된다.

제주방언의 ‘·’는 갑자기 나타난 제주지역만의 특징적인 음운이 아니다. 옛말이 아직 사멸되지 않고 몇 어휘에 남아서 제주지역에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샘>에서 옛말로 분류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그 음가가 완전히 옛것과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주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현실의 언어라는 뜻이다.

사전이 실제 발화되는 단어들의 집합체인지 교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의 총체인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 특히 <우리말샘> 사전은 개방성과 국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사전이다. 따라서 <우리말샘> 사전의 제주방언 표제어에서 ‘·’의 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제어 선정

제주방언에서 실현되는 ‘·’가 있는 단어는 표준어형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분 ‘ㅏ’형으로 표기한 표제어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중에는 실제 제주방언에서 ‘ㅏ’ 형태로 발음되지 않아 괴리감이 큰 단어들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본다.

(5) ㄹ래: 가래(맷돌)

꺄체: 갈체(삼태기)

늡뻤: 남뻤(무)

- 독세기: 닥세기(달갈)
- 몹국: 맘국(모자반국)
- 송키: 상키(푸성귀)
- ㅋ짱ㅎ다: 카짱하다(가지런하다)
- 톡: 탁(턱)
- ㅎ꼼: 하꼼(조금)

(5)는 현실 발음을 반영하지 않고 ‘·’를 ‘ㅏ’로 표기하여 ‘가레, 갈체, 남빠, 닥세기, 맘국, 상키, 카짱하다, 탁, 하꼼’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제주방언 화자의 실제 발화에서는 ‘ㅏ’로 발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표제어를 제주방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했을 경우 ‘ㅏ’형으로 말하고 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6) 말갓아들: 말갓아달, 말갓아들(셋째아들)
- 다슴아들: 다슴아달, 다슴아들(의붓아들)
- 다심아들: 다심아달, 다심아들(의붓아들)
- 단아들: 단아달, 단아들(외아들)

‘아들’의 제주방언형은 ‘아달’로 ‘X아들’의 형태는 <우리말샘>에서 위의 (6)처럼 ‘아달’과 ‘아들’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달’은 경남방언으로만 설명되어 있고 제주방언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반면 ‘X아달’의 형태인 ‘말갓아달, 다슴아달, 다심아달, 단아달’을 제주방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2음절의 ‘·’가 있는 ‘아들’을 ‘아들’과 ‘아달’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제주방언에서 ‘아달’처럼 발음하는 경우는 볼 수 없다. 실제 어떻게 발화되는지 보다 현행의 국어정책과 국어사전의 원칙을 중시한다면 사전의 표제어는 언어로서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특히 방언의 표제어를 잘못 등재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고착되면 마치 그 지역의 방언인 것처럼 여기게 되며 나아가 전혀 다른 단어가 그 방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문제를 낳

게 된다.

### 3. 다양한 변이형 추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전자사전인 <우리말샘>은 사용자 중심의 사전이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이형을 제시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7) 모밀: 모밀, 모밀가루, 모밀국시, 모밀느끼미, 모밀느쟁이
- 모물: 모물, 모물체, 모물늣
- ㅁ밀: 모밀, 모밀낭
- ㅁ물: 모물, 모물가루, 모물국시, 모물떡
- ㅁ물: 모물, 개모물

표준어 ‘메밀’의 제주방언형이라고 제시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표기 정보에서 “‘ㅁ물, ㅁ밀, ㅁ물, ㅁ물’ 등으로도 적는다.”로 제시된 것으로 ‘모밀, 모밀, 모물, 모물’ 등의 형태로 <우리말샘>의 표제어로 올라 있다. (7)의 예는 방언의 이형태를 모두 표제어로 제시하여 발음 및 표기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단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메밀’을 뜻하는 제주방언에 한정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메밀’의 이형태를 모두 표제어로 올렸다면 다른 단어에서도 ‘·’의 변화형을 모두 인정하여 실어야 한다. 한편 1음절의 ‘ㅁ’는 ‘모’로 2음절의 ‘물’은 ‘밀’과 ‘말’로 제시했는데 이 또한 어떤 기준으로 ‘·’의 변화를 적용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본다.

- (8) 즈베기: 저베기, 저배기, 저바기, 수저베기(수제비)
- 자바기, 자베기, 조베기(‘·’ 표기가 없지만 ‘수제비’의 제주방언으로 설명된 표제어)

## 칼즈배기: 칼자배기, 칼저배기

‘수제비’를 뜻하는 제주방언은 ‘즈베기, 저베기’이다. <우리말샘>에서 이 ‘수제비’의 제주방언형은 ‘저베기, 저배기, 저바기, 자바기, 자베기, 자배기, 조베기’ 등으로 나타난다. ‘자바기, 자베기, 조베기’ 등에는 ‘~로도 적는다’와 같은 제주방언 표기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배기, 자베기’, ‘저베기, 저배기’처럼 2음절에 ‘애’와 ‘에’ 형을 모두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가 있는 표기 정보를 제시한 경우는 모두 ‘저’의 형태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제비의 방언으로 ‘자’와 ‘조’ 형태는 표기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서는 ‘칼즈배기’는 ‘칼자배기’와 ‘칼저배기’ 두 가지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 ‘즈베기’의 다양한 변이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제 발화되는 형태인지 검증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집게’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는 ‘잡게, 적괘, 접게, 좁작게, 지괘, 집괘, 집괘, 집작게’ 등이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으나 유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적괘, 집괘’는 ‘즉괘’로도 적는다고 하여 표기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변이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들의 실제 사용되는 단어인지, 이들 간의 유의관계를 설정되어 있는지 또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 4. 일관성 있는 표제어 선정

현대국어 ‘하다’의 제주방언은 ‘ㅎ다’이다. ‘ㅎ다’는 단독형으로도 존재하지만 접미사 ‘Xㅎ다’ 형태로 단어 생산성이 높다. ‘ㅎ다’는 18세기부터 ‘하다’로 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제주방언에서는 ‘ㅎ다’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방언형에서는 주로 ‘허다’의 형태가 많이 드러나며 제주방언에서는 ‘허다’와 ‘ㅎ다’ 형태가 나타난다.

- (9) 구송ㅎ다: 구송허다(흥잡다)  
 모드락ㅎ다: 모드락허다(모도룩하다)  
 쫘지롱ㅎ다: 쫘지롱허다(쫘짜레하다)  
 심드랑ㅎ다: 심드랑허다(심드렁하다)  
 문짝ㅎ다: 문짝하다, 문짝허다(밋밋하다)  
 몽끗ㅎ다: 몽끗하다, 몽끗허다(몽클하다)  
 ㄱ슬허다: 가슬하다, 가슬허다(가을하다)

‘Xㅎ다’는 <우리말샘>에서 일괄적으로 ‘하다’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9)에서 제시한 7개의 단어의 경우 표제어를 ‘허다’형태로 등재하였다. 이 중 3개는 ‘하다’와 ‘허다’형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특히 ‘ㄱ슬허다’는 제주방언 표기 형태를 ‘ㅎ다’가 아닌 ‘허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하다’가 아닌 ‘허다’ 형태로 등재되었는지, 제주방언 표기형이 ‘ㅎ다’와 ‘허다’의 구분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한편 ‘흙밥호다(소꿍질하다)’처럼 ‘호다’ 형태가 표제어로 올라간 경우도 볼 수 있다. ‘흙밥호다’의 비슷한말로 올라가 있는 ‘밤펼락허다, 밤폴락허다’는 “‘ㅎ다’라고도 적는다”는 언급이 없어 이 연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렇게 누락된 형태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의 ‘Xㅎ다’를 일괄적으로 ‘X하다’형으로 <우리말샘>에 등재하였으나 그 중 몇 개 단어에서는 다른 형태를 추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말샘>에 ‘·’가 있는 제주방언형을 표제어로 등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표제어를 선정했는지 기준을 알 수 없다. 대부분은 ‘·’를 ‘ㅏ’로 표기했으나 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주방언에서 ‘ㄴ물’이라 부르는 ‘나물’의 표제어 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 드르ㄴ물: 드르나물(들나물)  
 지름ㄴ물: 지름나물(유채)  
 드른ㄴ물: 드른나물(멧나물)

- 두레기늑물: 두레기나말, 두레기나물(품질이 낮은 나물)
- 참늑물: 참나물, 참노물(열무)
- 늑물: 나물(나물)
- 건데늑물: 건데나물(근데)
- 스카늑물: 스카나물(양배추)
- 지름늑물: 지름나물(유채)
- 복지께늑물: 복지께나물, 복직개노물(말나리)
- 동지늑물, 동지늑물: 동지나물(연한 장다리가 돌아난 채소)
- 무시늑물, 무시늑물: 무시나물(무)
- 아기늑물, 아기늑물: 아기나물(어린채소)
- 드룻늑물, 드룻늑물: 드룻나물(들나물)

제주방언 ‘늑물’의 표준어는 ‘나물’이며 이를 표제어로 올리면서 ‘나물’로 표제어를 올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말’이나 ‘노물’로 올린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방언형을 ‘늑물’로 본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물’형으로 등재한 것을 볼 수 있으나 ‘복지께늑물’의 경우는 ‘노물’과 같은 형태도 등재하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 표기 정보에서는 ‘늑물’, ‘늑물’형을 제시하고 표제어는 ‘나물’형만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제주방언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방언형이 두 가지 형태로 등재하고 있어 표제어 등재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5. 발음 정보 제공

사전 이용자들은 사전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제주지역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방언 사전 편찬 시 표제어에 대한 발음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3%<sup>22)</sup>로 높게 나타났다. 발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은 음성 형태, 글자로 제시, 국제



음성기호로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국제음성기호로 제시하면 발음기호가 조금 더 정교하겠지만 일반인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실용성이 떨어진다.

기존 국어사전의 형식을 빌려 ‘[ ]’ 안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행해오던 것이다. 현재 〈우리말샘〉에서 “제주 지역에서는 ~로도 적는다.”와 같이 표기 정보를 제시한 단어들에 대해 표제어에서 ‘갈체[갈체]’와 같은 형식으로 발음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방언 화자에게 ‘·’는 표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발음의 문제이다. 따라서 발음 정보에서 ‘·’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VI. 결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에서 ‘·’로 실현되는 어휘가 〈우리말샘〉에서 어떻게 표기되어 표제어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표기의 오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말샘〉에 나타나는 제주방언 가운데 ‘·’음을 가지는 어휘 4,008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의 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는 〈우리말샘〉에서 ‘ㅏ, ㅑ, ㅓ, ㅕ, ㅗ, ㅛ’ 등의 표제어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표제어를 선정할 때 ‘ㅏ’형의 표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표준형에 기대어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괄 ‘ㅏ’형으로 표기하여 ‘맘국, 남뻬, 바뜨다, 가레, 탁’ 등과 같이 실제 제주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를 가진 어휘가 제주지역에서는 ‘·, ㅓ, ㅕ’ 등 다양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말샘〉에서는 하나의 표기로만 표제어로 인정하여 다른 형태의 발음을

22) 오승훈·오창명, 『사용자 중심의 제주말사전 발간 방안』, 제주학연구센터, 2015, 201쪽.

인정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에서 하나의 어휘에 대하여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말샘>에서는 각각의 어휘에 대하여 모든 유의관계를 설정하지 않거나 단독형과 합성형의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나타나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주방언의 ‘·’ 어휘를 <우리말샘>에서 표제어로 표기하는 데 나타나는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방언 표제어에 ‘·’ 형태를 추가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브름, 물’ 등과 같이 ‘·’ 어휘들이 확인되고 여전히 방언 발화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이다. 다양한 방언 어휘들을 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 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제어를 선정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괄적인 ‘ㅏ’형의 표제어 등재로 인해 현실 발음과 다른 어휘들이 표제어로 올라 있다. 이러한 어휘들을 재검토하여 제주지역의 현실 발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주방언의 다양한 변이형을 추가해야 한다. 표제어 사이 유의관계를 갖는 어휘에 대하여 변이형을 가급적 많이 실는다면 보다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표제어를 선정할 때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우리말샘>은 제주방언의 ‘·’ 어휘에 대하여 제주방언형을 하나의 형태만을 인정하거나 실제 발화되지 않는 형태까지도 등재한 경우가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방언 표제어에 대한 발음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샘>의 ‘~로도 적는다.’와 같이 표기의 정보 대신 ‘갈채[갈체]’와 같이 제주지역의 발음 정보를 제공하면 더 효율성 있는 사전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모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앞으로 ‘으슴, 으답, 으망지다, 읊다,

웃새' 등과 같은 '.. '가 포함된 어휘 등도 등재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사전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창에 어떤 표기로 적더라도 원하는 표제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검색용 이형태가 '·'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어휘가 제주에서는 '·' 음으로 실현된다면 그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표제어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제공하는 정보가 일관성·통일성이 있어야 사용자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제주방언 표제어에 대해 다루었으나 앞으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뜻풀이가 수정되어야 할 표제어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하여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우리말샘> 누리집,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main\\_logo\\_id](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main_logo_id)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2. 논문 및 저서

고동호,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65권, 한국언어문학회, 200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 휴먼컬처아리랑, 2014.

권미소,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김선철, 「새로운 언어 사전과의 만남: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새국어생활』 26권 4호, 국립국어원, 2016.

김덕호, 「국가 언어 자원 축적 성과와 통합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국어학』 96호, 국어학회, 2020.

문순덕·오창명·김원보·신우봉,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2015.

박보연,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방언 구축」, 『한국사전학회 제21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2.

송현주·최준·남길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의 표제어와 뜻풀이의 특성-‘생활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0호, 한국사전학회, 2012.

송현주·남길임, 「『우리말샘』 관련어 유형 및 정비 구축의 실제」, 『한국사전학』 22호, 한국사전학회, 2013.

송현주·김령환, 「<우리말샘> 참고어휘의 하위 분류 방안」, 『언어과학연구』 71호, 언어과학회, 2014.

- 신우봉, 「제주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신우봉, 「『우리말샘』에서 제주방언 처리에 대하여」, 『2021 영주어문학회 · 민족어문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영주어문학회 · 민족어문학회, 2019.
- 오승훈 · 오창명, 『사용자 중심의 제춧말사전 발간 방안』, 제주학연구센터, 2015.
- 이근열, 「국어 사전의 한자 어명(魚名) 오류 연구」, 『어문론총』 제83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 이승재, 「21세기형 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한국사전학』 20호, 한국사전학회, 2012.
- 이태영, 「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의 방향」, 『국어문학』 제69권, 국어문학회, 2018.
- 이철기, 「소멸위기 언어 보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 방언 교육의 방향-제주방언 말소리 아래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제18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5.
- 이현주, 「〈우리말샘〉 편찬 경과」, 『새국어생활』 제26권 4호, 국립국어원, 2016.
- 위 진,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의 이용 양상 분석」, 『한국사전학』 31호, 한국사전학회, 2018.
- 장경준 · 허인영, 「〈우리말샘〉 어휘 역사 정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전학』 33호, 한국사전학회, 2019.
- 정승철,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 조성문,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14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현평효, 「제주도 방언의 모음 체계」, 『국문학보』 제3권,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dialect headword in <Urimalsaem>  
-Focusing on words expressed with ‘·’ in Jeju dialect

Kim, Mi-jin<sup>\*</sup>

Kwon, Mi-so<sup>\*\*</sup>

Hyun, Hye-rim<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in confirming how words expressed with ‘·’(Are-a) in Jeju dialect amongst Jeju dialect headwovrds are registered in <Urimalsaem>, inspecting issues of notation errors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issue.

In <Urimalsaem>, ‘·’(Are-a) appears 4,718 times in 4,008 Jeju dialect words, most of which is notated as ‘ㅏ, ㅑ, ㅓ, ㅕ, ㅗ, or ㅛ’. It is notated in ‘ㅏ’ mostly as words using ‘·’ (Are-a) in Jeju dialect has been studied as a variation of ‘ㅏ’ based on conjecture and expansion of standard language. However, the issue is that when ‘·’(Are-a) in Jeju dialect is uniformly notated in ‘ㅏ’, it creates words such as ‘맘국’, ‘남뻘’, ‘바뜨다’, ‘가래’, ‘탁’ which are not practically used in Jeju Island, creating confusion in its user.

In <Urimalsaem>, 99.7% of the words in ‘Xㅎ다’ form in Jeju dialect are shown as ‘X하다’ form. Such does not acknowledge conversion of ‘Xㅎ다’ form in Jeju dialect to ‘X하다’. Furthermore, standards for

---

\*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 Ph.D Student, 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llomorphic headword for Jeju dialect provided in <*Urimalsaem*> is incoherence. In words like ‘늑물’, ‘막물’, very diverse allomorphs are offered as headwords, but allomorphs that must be provided, such as ‘아들’ into ‘아덜’, cannot be found, but ‘아달’, which is never used, is rather provided as allomorph.

Therefore, This study has added words that must be notated with ‘·’(Are-a) amongst Jeju dialects in <*Urimalsaem*>, emphasized notation based on natural speech in selecting headword, and proposed more logical standard in selecting headword and furthermore addition of various allomorphs as headword after confirming textual reference and dictation in recording of its actual speech. Also, headword of dialect including Jeju dialect has been noted of necessity to provide its pronunciation.

Providing user with information on dialect headword is very meaningful feature in <*Urimalsaem*>. However, it seems as a very urgent issue to correct the incorrect entries of Jeju dialect that consists the most of dialect headwords. I hope <*Urimalsaem*> would become a better open dictionary after reviewing the errors commented in this article along with future improvement plans and other issues.

Key-words: *Urimalsaem*, Jeju dialect, ·(Arae-a), dialect headword, Open-type dictionary

논문투고일 2022. 2. 6.

심사완료일 2022. 3. 4.

게재확정일 2022. 3. 15.